

수도권 투기 더 키우고 지방시장만 잡았다

■ 참여정부 5년, 부동산정책 뭘 남겼나

실세없는 정책 발표에도 수도권 집값은 더 뛰어

전국 땅값 23% 상승 불구 광주·전남은 '제자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수요억제를 통한 투기세력 근절이었다. 지난 5년간 고강도의 정책을 펼 새 없이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대책 발표 전후로만 잠시 숨을 죽였을 뿐 이내 급등세로 돌아서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특히 참여정부 정책은 광주·전남 등 애꿎은 지방시장만 '잡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투기세력의 배만 불린 반면, 지방시장은 투자심리 급변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다.

◇수도권·지방의 집값 양극화 심화=지난 5년간 광주·전남 등 지방의 집값 상승폭만 놓고 본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성공을 거뒀다.

2003년 이후 광주의 집값 상승률은 8.3%로, 5년간 물가상승률(16.4%)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같은 기간 전남의 집값은 3.7%나 떨어져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실감케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정책의 타깃인 수도권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5년간 서울의 집값은 42.0%나 올랐으며, 성남과 안양도 각각 53.8%, 53.5% 급등했다.

여기에 2005년 발표된 8·31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각각 27.4%, 28.2%나 오른 반면, 광주·전남의 집값은 각각 3.6%, 2.1% 올라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정책이 광주 등 지방시장에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특히 지방시장의 경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미분양주택이 날로 늘어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은 1만2천396가구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4년(4천462가

■ 참여정부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단위:%)



■ 참여정부 땅값 상승률 (단위:%)



구)의 3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전남 토지소유자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지난 5년간 광주·전남은 토지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맛봐야 했다. 전국의 땅값이 크게 들쭉인 가운데서도 지역 내 땅값은 사실상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역 부동산자산의 가

치하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되레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5년간 전국의 땅값은 23.7%나 올랐다. 충남이 36.5%나 오른 것을 비롯, ▲서울(34.9%) ▲경기(29.1%) ▲인천(24.2%) 등의 땅값이 크게 치솟은 탓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땅값이 각각 5.9%, 7.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나주 등 일부 지역이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로 소폭 강세를 보여 수치를 늘렸을 뿐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땅값은 떨어진 꼴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지난 5년은 광주·전남의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진 시기"라며 "특히 광주는 5년간 전셋집이 19%나 올라 무주택 서민들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산학연기관·오피니언리더 등 22명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산업진흥협의회가 2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테크노파크 본격 가동

산업진흥협의회 첫 창립총회

광주지역 산업진흥협의회(회장 남현일)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산업진흥협의회는 지역내 산학연기관, 오피니언 리더 등 22인으로 구성됐으며, 2009년부터 시작될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기관간 장비도입 중복방지, 과학기술정책과 기업지원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산업연구원 송하을 박사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정책'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광주테크노파크 남현일 원장은 "향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지역산업정책에 반영하고 다시 지역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 농식품 중동권 수출 확대

'두바이식품 박람회' 참가한다

전남도·aT 광주·전남지사

전남도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전남 농식품의 중동지역 수출확대와 시장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08 두바이 식품 박람회 (GULFOOD 2008)'에 참가한다.

중동지역 중계무역 물류허브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바이어전문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업체에 신규 유망바이어,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해외우수제품 벤치마

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사는 22.5㎡ 규모의 전남도관을 마련해 현대농조합, (주)범우, 초성농산 등 3개 업체가 출품하는 양과주스, 인삼새송이·팽이버섯, 기능성 면류 등 수출유망품목을 전시하고 활발한 수출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권용주 aT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전남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동지역에 수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친환경 축산물 홍보

'제2회 사진공모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깨끗하고 건강한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제2회 축산물 관련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광주·전남관내 거주인(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사발표는 오는 4월16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소재 축산농협 또는 농협전남지역본부(축산경제팀 062-220-7591)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기술혁신·경쟁력 확보

상반기 상용화 자금 600억 26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을 확정, 공고하고, 오는 2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총 600억원이 지원된다.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 1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개발자금을 통해 기업의 독창성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지원된다. 구매조건부사업은 구매기관(공공기관·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와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00억원이다.

올해 신규 상용화사업인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은 해외발주처로부터 신상품개발 주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이 지원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분케어' 기술 음식물 장시간 보관

삼성 '2008년형 지펠 냉장고' 출시

삼성전자는 21일 '수분케어' 기술을 적용해 음식물을 장시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2008년형 지펠 냉장고 신제품 47개 모델을 출시했다. <사진>



수분케어 기술은 독립냉각 기술에 기반, 야채와 과일,의 최적 보관 습도(60~90%)에 가깝게 냉장고 내의 습도를 최대 74%까지 유지해 음식을 더욱 오래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08년형 지펠은 독립냉각 기술을 채용하지 않은 일반 냉장고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습도를 유지해 야채와 과일 보관기간을 최

장 3배 가량 늘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4도어 콤팩트 모델이 200만~30만원대, 인테리어형 모델이 160만~90만원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확장기업

일일비프가 개발 23개년상을 얻어내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2008년 확장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서정권)

협심/수입특선

- 비프한식 29,000
- 바인베어리 12,000
- 농작물버섯 수제김밥(2인분) 11,000

총매출 50억 이상 (등록후회 50억)

광주특수 상사(사)의 사자님 **234-0001**

SONY

42인치 FULL HD 해상도 대비 BRAVIA의 특별한 기회!

Sony Family 미니·중·대형

● 행사기간: 2월 1일 ~ 3월 31일

BRAVIA

062) 522-2000